상상의 끝, 나폴리의 맛

MALATERRA

취재 한성옥

나폴리에서 먹는 나폴리 피자보다 더 정통적이면서 참신하고 흥미로운 맛. 로마에 문을 연 MALATERRA는 음식의 지역성에 재기발랄하고 자유분방한 상상력을 토핑처럼 듬뿍 뿌린 공간으로 피자의 맛을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린다.

때때로 미식은 아주 짧지만 무엇보다도 강렬한 여행이 된다. 한 지역의 풍토와 문화가 깃든 음식을 입안에 머금고 있으면 마치 그곳의 자연과 삶 일부가 내 안에 들어오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나폴리 피자, 베트남 쌀국수처럼 도시나 나라의 명칭을 덧입은 음식은 더더욱 맛과 지역의 관계가 깊다. 요리 그 이상의 경험까지 전하고자 하는 식음 공간은 자연히 음식의 지역성을 살린 풍경에 공을 들이게 되는데, 로마에 새로 문을 연 나폴리 피자 전문점 MALATERRA는 지역적 공간 요소를 살리되 전형성을 탈피하고 재기발랄한 디자인으로 변주해 풍부한 경험을 선사한다. 나폴리의 피자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팔라디안(Palladian) 바닥재를 갖가지 색의 깨진 타일로 재해석해 현란할 정도로 다채롭고 생동감 넘치는 풍경을 그린 것이다. 타일의 색을 벽으로 연장하면서 구역별로 다르게 채색해 색의 힘을 한층 선명히 전달하고 공간에 흐름을 부여한 점도 돋보인다. 더불어 피자를 내주는 흰색 접시를 장식 요소로 활용해 보면 볼수록 재미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며 갈대 줄기를 벌집 모양으로 짠 비엔나 스트로를 가미해 이국적인 느낌까지 불어넣었다.

Design / CARMINE ABATE ARCHITETTO
Location / Via Della Mercede 43/44, Rome, Italy
Area / 350㎡
Photography / Carlo Oriente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자리한 매장. 나폴리 특유의 분위기를 감각적으로 재현했다.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 자리한 매장은 들어서는 순간 주변의 고풍스러운 건물들을 모두 잊게 될 만큼 강렬한 이미지를 펼쳐 보인다. 공간을 꽉 채운 색과 독특한 마감재 덕분인데, 벽 하단과 바닥 전체를 덮은 마감재는 대리석이나 석판을 불규칙하게 스크랩한 팔라디안 바닥재를 재창조한 것으로 깨진 타일을 조합해 이곳만의 스타일로 변주했다. 조각 타일은 화이트, 슈가 페이퍼, 터메릭, 인디언 옐로, 차콜 블랙 등 다양한 색으로 구성해 유쾌하고 역동적인 기운이 뛰노는 바탕을 이룬다. 타일의 색은 벽으로도 이어져 생기를 극대화한다. 내부는 각기 다른 크기의 실 네 개로 구성되는데 전체 디자인은 통일하되 실마다 벽의 색을 달리해 공간의 맥락을 섬세하게 매만졌다. 입구가 있는 첫 번째 실은 슈가 페이퍼에서 따온 하늘색으로 물들여 시원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어지는 중앙 홀은 그레이지, 세 번째 실은 토프, 베란다는 대지처럼 붉은색을 입혔다. 여러 색을 사용하는 대신 천장은 하얀색으로, 벽 구분 선이나 개구부, 가구 등은 검은색으로 칠하고 가구는 단순하게 디자인해 흐름을 적절히 갈무리했다. 소파 좌석 역시 벽과 동일한 색을 적용해 깔끔하게 계획하되 위쪽에 비엔나 스트로 패널을 더해 공간의 밀도를 이완했다. 비엔나 스트로는 이 외에도 가구, 선반, 바 카운터와 계산대의 보아세리 등에 폭넓게 활용돼 여유롭고 한적한 이국의 휴양지를 연상시킨다. 공간 전반에서 장식 요소로 전개되는 접시 역시 눈여겨볼 만하다. BITOSSI HOME의 접시에 글자를 새겨 다양한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캐주얼하고 위트 있는 이미지를 발산한 것이다. '피자를 가져와' '하나의 사랑' 같은 글귀나 각종 피자 이름을 이루는 알파벳이 쓰인 레터링 컬렉션을 비롯해 총 377개의 접시가 공간을 가득 채워 지루할 틈이 없다. 접시를 벽에 붙이거나 천장에 고리 형태로 달고 조명과 결합하는 등 전개 방식을 다변화했는데 중앙 홀은 천장을 깊이 파내고 접시를 겹겹이 배열해 독특한 콘셉트에 방점을 찍었다.

나폴리 피자 가게에서 사용하는 흰 접시를 장식 오브제로 탈바꿈했다. 익살맞은 글귀를 새겨 조명과 결합하거나 알파벳 접시를 조합해 피자 이름을 만들어 재미있게 연출했다.

오래된 피자 가게에서 자주 보이는 팔라디안 바닥재를 깨진 타일로 재해석했다. 다양한 색을 뒤섞어 활기찬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타일에서 따온 색을 벽에 칠하고 검은색으로 흐름을 정돈했다.

그레이지 컬러를 입힌 중앙 홀. 천장을 파내고 접시 오브제로 채워 시선을 사로잡는다.

비엔나 스트로 만든 보아세리를 바 카운터, 가구, 벽 선반 등에 적용해 나폴리나 지중해 같은 여유로운 낭만이 느껴진다.

바닥 타일의 색을 벽에서 토프 컬러로 이어간 세 번째 실.

팔라디안 스타일 타일로 천장, 벽, 바닥을 모두 채워 압도적인 화장실.

장작 화덕을 구비해 정통 나폴리 피자를 선보이는 주방.